

| | | | | |
|--|--|---|------------|--|
| 제 목 | 국 문 | 농촌지역노인들의 인지기능 장애와 사망률에 관한 연구 -1차 추적조사 결과- | | |
| | 영 문 | Cognitive impairment and Mortality in Rural Elderly -First follow up result- | | |
| 저 자 및 소 속 | 국 문 | 이정애, 선병환, 남해성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
| | 영 문 | Jung Ae Rhee, Byeong Hwan Sun, Hae Sung Nam College of Medicine, Chonnam Univ. | | |
| 분 야 | 역 학 | 발 표 자 | 선 병 환(전공의) | |
| 발표 형식 | 구 연 | 발표 시간 | 15분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연구중 (V) → 완료 예정 시기 : 96년 11 월 | | | |
| <p>1. 연구 목적</p> <p>노인에서 흔히 보이는 정신질환중 하나인 치매는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목받는 사망원인이 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노인성 치매를 비롯한 인지기능장애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예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노인들에서 인지기능장애 정도와 전체 사망과의 관련성을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질병변수 등을 통제후 살펴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전남 곡성군을 대상으로 1읍과 10개면에서 2-3개 마을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각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전체 65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인지기능과 기타 혼란변인 등을 측정하기 위해 1992년 6월부터 동년 7월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558명을 면담완성하였다. 이들의 사망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95년 9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사망유무와 사망일자를 확인하였다. 방문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보건진료원을 통하여 진출 및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면사무소에서 사망 또는 진출일자를 열람하였다.</p> <p>인지기능의 측정은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혼란변인으로 연령, 성, 교육, 결혼상태, 수입, 음주 및 흡연습관, 아침식사 습관, 질환 및 신체이상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p> <p>분석은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score에 따라 인지기능장애를 중증, 경증, 정상 등 세군으로 나누어 Kaplan-Meier method를 이용 생존곡선을 구하고 log rank test로 검정하였다. 또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 혼란변인을 통제하고 중증 및 경증의 인지장애가 전체 사망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p> | | | | |

3. 연구결과

1) 전체 조사자중 인지기능이 정상인 자는 54.8%, 경도 인지장애자는 30.3%, 중증의 인지장애자는 14.9%였고 인지기능의 점수의 평균값은 연령, 성,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수입, 일상생활 활동능력, 만성질환 유무, 신체이상 유무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3년동안 전체 대상자의 사망율은 10.2%였다. 정상 인지기능군의 6.9%, 경증 인지장애군의 13.5%, 중증 인지장애군의 15.7%가 사망하였는데 각군의 생존곡선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 univariate Cox regression model에서 경증 및 중증 인지기능장애군은 정상군에 비해 각각 1.52배, 2.34배 사망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multivariate Cox regression model에서 혼란변인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중증 및 경증 인지기능장애군의 사망위험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